

핀테크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(별도 참고자료)

□ (현황)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은 주로 외화를 환전(현금)하거나, 해외겸용 신용카드(VISA, MASTER 등 제휴)를 이용(연간 약 20조원 수준)

① 외화를 환전하여 가져갈 경우, 환전 수수료와 함께 현금 보유에 따른 불편 및 현금 과·부족시 여러 비용 부담 발생*

* 환전한 외국 화폐가 남게 되는 경우, 면세점 등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, 원화로 다시 환전할 경우 환전 수수료가 추가 발생

② 신용카드 이용시에는 3~5% 내외의 높은 수수료와 환변동 위험 부담

□ (규제 개선) 전자금융업자도 모바일페이(직·선불결제)를 이용하여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(5.28일 시행)

* 관계부처 합동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(19.2.25)」 후속조치

⇒ (해외 간편결제 추진)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페이코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은 모바일페이를 통한 해외결제 서비스 준비 중

①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페이코는 일본*에서 우선 서비스 할 계획

* 일본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,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결제를 확대한다는 입장

- 이에 일본에서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엔트파이낸셜(카카오페이) 및 라인(네이버페이,페이코) 등과 제휴

② ¹⁾낮은 수수료(또는 없음), ²⁾결제시점의 환율 확정(환율 변동위험 없음)
³⁾결제인 매매기준을 적용(환전 수수료 없음) 등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

<해외결제 서비스별 비교>

	신용카드	모바일간편결제
해외결제 수수료	약 1.5% 내외 (국내카드사 수수료, 국제브랜드사 수수료 등)	0%~1.5% (일부 업체는 전면 무료)
환전 수수료	약 1% 내외 (전신환 매도율 적용)	없음 (매매기준을 적용)
환율 변동 리스크	있음 (결제 2~10일 후 대항은행 고시 기준)	없음 (결제 당일 또는 전일 대항은행 고시 기준)
(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: DCC)	(DCC 이용시 수수료 3% 내외, 최대 8%)	(불필요)